광주·전남 수출 '부진의 늪'…車·바퀴만 '씽씽'

5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수출액 46억5천만 달러로 전년비 35.2% 급감…5개월 연속 감소

가전 20.8%·반도체 14.2% ↓…자동차 20.9%·타이어 8.5% 늘어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다섯 달 연속 뒷걸음질을 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를 제외하고 지역 주력 산업이 모두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제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소비침체로 가전업계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광주지역 관련 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는 등 우려도 커진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3년 5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액은 46억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35.2%나 급감했다. 수입은 23.8% 감소한 43억5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3억4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수출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수출액은 46억1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감소했고, 2월에도 13.0% 감소한 47억3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3월에도 3월 11.5% 줄어든 50억5300만 달러, 4월에는 16.0% 감소한 40억3900만 달러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5월 말 누계 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전년 대비 18.1% 줄었고, 수입은 14.3%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28억5500만 달러 흑자였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4.0% 감소한 15억5400만 달러, 수입은 16.6% 감소한 6억92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6200만 달러 흑자였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자동차 등 수송장비가 20.9%, 타이어는 8.5% 증가한 것과 달리, 가전제품은 -20.8%, 반도체 -14.2%, 기계류 -13.9% 등이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전남은 지난달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44.3% 감소한 30억9600만 달러, 수입은 25.0% 감소한 36억1300만 달러로 5억1700만 달러 적자의 무역수지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 -46.1%과 화공품 -26.5%, 수송장비 -63.2%, 철강제품 -71.8%, 기계류 -65.1% 등 모든 품목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자동차를 제외한 지역 내 모든 주력 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근 광주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가전업계의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 극심한 경기불황 속 소비침체로 가전제품 수요가 크게 줄면서 침체일로를 걷게 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프리미엄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등 광주에서 생산되는 주요 가전제품 판매가 부진을 겪으면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위니아전자 광주공장의 가동률은 줄고, 관련 협력업체의 수주 물량 역시 감소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전남에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관련된 기업이 1차 협력사를 비롯해 300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이 줄고, 생산량이 감소해 수주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1차 협력사는 물론, 2차, 3차 협력사 등 지역 가전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의 한 가전기업 관계자는 "수주 물량이 30%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중소 협력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올해 '광주·전남 수출환경 전망'자료를 보면 응답기업 131개사 중 37.4%가 올해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전기·전자의 경우 수출악화 의견이 52.9%에 달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벌떼입찰'로 일감몰아주고 '꼼수' 경영권 승계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부과

호반건설과 그룹 계열사들이 '벌떼입찰'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꼼수' 경영권 승계가 적발돼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김 이사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9개 사에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

또 호반건설은 택지 양도 이후에도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총수 2세 회사에 업무·인력·PF(프로젝트 펀드) 대출 지급 보증(2조6393억원) 등을 지원했다.

호반건설 역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하는 '벌떼입찰'을 벌였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평균 38억원·총 1조575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호반건설의 이런 부당 지원은 애시당초 경영권 승계를 염두해 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 기간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2018년 1대 5.89의 비율로 호반건설에 합병됐다. 이로써 김 사장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마쳤다.

호반건설주택은 김대헌 사장이 미성년자였던 2003년 김상열 이사장이 아들을 대리해 설립했는데, 당시 내부 보고서에서는 김 사장 등 친족이 장차 신설 법인(호반주택건설)을 통해 호반건설의 지배권을 획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보해소주 스몰 액션 스토어' 북적

광주시 동구 동명동 '보해소주 스몰 액션 스토어'에서 달리기 동호회 'BGRC' 회원들이 플로깅 활동에 앞서 주의사항을 듣고 있다. 지난달 문을 연 '보해소주 스몰 액션 스토어'에는 최근 플로깅에 참여하기 위한 달리기 동호회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CEO혁신아카데미 여성기업포럼도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회장 김현화)는 지난 14일 목포 소재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CEO혁신아카데미 여성기업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2013년 6월 25일 창립해 올해 10주년을 맞은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는 현재 110여개 여성벤처 기업인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벤처기업 우수제품박람회, CEO혁신아카데미 여성벤처포럼 등을 통해 여성벤처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망한 여성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여성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총 600만원의 후원금을 한부모 복지시설인 '자광드림빌'과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공간인 '징검다리배움터 늘품'에 각각 300만원씩 전달했다.

기념식 이후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등 경영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기업 포럼도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는 조상열(사)대동문화재단 대표가 강사로 나서 인문학 특강을 펼쳤다.

김현화 회장은 "올해를 향후 10년 도약을 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농가 돕기 '과일데이'

이마트 17~18일 할인·상품권 증정

이마트는 17일부터 18일까지 '과일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과일데이'는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과일 소비가 줄어들면서 판로 확보가 절실한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마트에 따르면 물가상승 여파로 식재료 성격이 큰 채소는 지난 1~5월 누계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약 9% 증가했지만 과일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마트는 여름철 매출 1위 과일 수박을 포함해 대석자두, 체리, 복숭아, 골드키위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수박 1만8900원(7kg미만), 대석자두 9980원(800g), 방울토마토 3980원(600g) 등 싼 값에 판매한다.

아울러 행사기간 과일 전품목 대상 행사카드로 3만원 이상 전액 결제 시 신세계상품권 1만원을 증정한다.

이마트는 또 소포장, 소용량 대표 상품인 '컷 파인애플', '조각수박', '조각멜론' 등을 포함해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냉동과일까지 이번 과일데이 프로모션에 포함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행사기간,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과일을 동시에 구매해 골라 먹는 재미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농협 고흥군지부·흥양농협 '마약근절 캠페인'

농협 고흥군지부와 흥양농협은 15일 '마약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진〉

김태훈 고흥군지부장과 조성문 흥양농협 조합장은 공영민 고흥군수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김은수 고흥군체육회장과 이강석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을 지목했다.

조성문 조합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많은 국민들이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김태훈 지부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이 심각한 문제인 만큼 마약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을 강화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고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약근절 릴레이 캠페인은 최근 마약 사건이 늘어나면서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공동주관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사진을 찍어 SNS 등에 인증하고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영·섬유역본부 '안전실천 결의대회' 개최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백인노)는 15일 오후 영·섬유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

이날 개최한 결의대회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하절기를 앞두고 안전관리체계 강화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영·섬유역본부장을 비롯한 영·섬유역 산하 19개 모든 부서장이 모여, 안전실천 결의를 선언하며 빈틈없는 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의지를 다졌다.

선언식 이후에는 가뭄·홍수대책 등 주요 물관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대책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백인노 영·섬유역본부 본부장은 "안전에 과유불급은 없다, 안전관리책임자인 본부장·부서장부터 솔선하여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청년도약계좌 인기…개시 첫날 5만7천여명 신청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신청 첫날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정오 기준 신청자가 약 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3시 기준 누적 신청자는 5만7000여명으로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비대면으로 이뤄짐에도 첫날부터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목돈 마련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날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기간을 갖는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11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08.54(-10.54)
↑	코스닥	878.04(+6.21)
↑	금리(국고채 3년)	3.626(+0.081)
↑	환율(USD)	1280.50(+2.00)